

만남

05

2018
통권 532호



특별기획 | 전교인 전도에 나서다
특 집 | 주님과 사귀는 가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서서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 ‘야곱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대학부 학생들이 ‘예수의 사랑’을 ‘사랑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 지난 3월 25일(주일) 4부 예배 직후 김운성 위임목사, 백성우 교육전담목사, 대학부 지도위원들이 함께한 모습

만남

2018년 5월호 통권 532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5.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사진 박홍기 선임기자

표지설명



3월 어느 주일
아동부 예배실에 걸린
그림 글씨를
'주님과 사귀는 가정',
'하늘나라' 소망과 함께
사진에 담았다.
사진 유승현 기자

이달의 말씀 02 •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 김운성

특별기획 04 •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전교인 전도에 나서다 | 최주철·박영식·정세영·윤극명·최경식·정천우

특집 주님과 사귀는 가정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0 •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귐 | 박규성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4 • 새가족 교우와의 사귐의 영성 | 황광용
 이 모두 주의 은혜 16 •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 정소원
 18 •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 김수아·김수혁
 20 • 주님과 사귀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 | 전택규

- 교육 22 •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건 가장 큰 축복 | 우대권·목진경·오승현
 생활과 역사 속의 기독윤리 25 • 한국인의 기독교윤리 | 고재길
 너 괜찮아? 28 • 친구이고 싶은 청소년상담 | 지동춘

- 선교 30 •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 황관중

- 교제 33 • 엄마가 먼저 앱을 지웠어요 | 정현선
 36 • 주님과 사귀는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 교육부
 39 • 5월의 영락영화
 영락의 울타리 40 • '은퇴제직상조회'를 아시나요? | 박진현
 44 • 성경적 효와 나라 섬김 | 최성남

- 봉사 46 • 개인 연령에 맞춘 건강관리 요령 | 이명춘
 사랑의 겨자씨 49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땅, 방글라데시 | 송지은

- 교회소식 51 • 한경직목사기념주간 이모저모,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등
 야곱의 우물가 63 • 영락화랑: 아름다운 목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64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65 • '만남' 주최 소년부 그림공모 수상작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김운성 위임목사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는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한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가 유명했습니다. 초등학생만 1만 2천여 명이 모일 때도 있었으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지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회학교에서 보조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장님이시던 안수집사님께서 서부교회 탐방을 같이 가자고 하셔서 부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자갈치 시장에서 꼼장어구 이로 저녁을 먹고 자그마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서부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주일 아침 7시가 넘으니 사방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몰려왔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어린이들에게 신발주머니를 나눠주셨고, 아이들은 예배당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장의자가 있는 이층에 5천여 명, 마루인 일층에 7천여 명이 앉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예배는 9시에 끝났고, 아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프로그램도 없었고, 간식도 없었습니다. 간식은 어린이

날과 성탄절에만 주는데, 당시 100원짜리 크림빵 하나씩 주려고 해도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이 몰려오는 유일한 이유는 선생님들의 상상 못 할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주간에 두 번씩 심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부교회를 탐방한 것은 4월 초순이었는데, 벚꽃이 만개할 때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장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운성아, 여기서 진해가 가까운데, 하룻밤 더 자고 진해 벚꽃 구경하고 내일 오후에 가면 어떠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 오늘 서울 가야 합니다!” 너무 단호한 대답에 집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왜?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니?” “네. 내일 새벽에 아버지께서 농장에 가시는데, 가실 때 인사를 해야 하거든요.” 제 대답을 들으신 집사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예정대로 서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하시던 일을 접으신 아버님께서

는 경상북도 봉화에 거주하던 친척의 제안으로 과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수원 주변에 벌을 길러 양봉도 함께하신 덕에 순도 100퍼센트의 꿀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의 건강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아버님의 꿀과 어머님의 사랑 덕입니다. 아니 하나 더 있지요. 지금 함께 사는 그분의 덕입니다. 이걸 빼놓다니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봉화에 상주하신 게 아니라, 봄에 가셨다가 가을에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때때로 왕래하면서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겨우내 서울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봄이 되어 월요일 새벽에 청량리역에서 중앙선 열차를 타실 예정이었기에, 벚꽃 구경을 하고 월요일에 올라가면 인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저도 벚꽃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안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진짜 효성이 지극하셨던 그 집사님께서 그 일을 온 교회 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후에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요즘도 그때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으라고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부모님 건강을 장로님께서 약사인 아들들을 통해 챙겨 주셨습니다. 온갖 몸에 좋은 약들을 공급해 주셨지요. 벚꽃놀이 한 번 거절한 덕에 효자 소리 듣고, 부모님 보약까지 해결된 셈입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절실힍니다. 지난 4월 5일은 아버님께서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날이었고, 5월 12일은 어머님께서 92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두 분 모두 토요일 저녁에 가셨기에 주일 예배 설교를 제가 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경우엔 그 주일이 어버

이주일이어서 부모님께 잘하라는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영락교회로 오면서 경황이 없어서 부모님 묘소에도 들르지 못하고 왔습니다. 언제 아내와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가정에 얹힌 이런 소중하고도 가슴 저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영락 가족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게 너무도 아쉽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잘합시다. 키워서 결혼시켜 떠나보내고 나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사는 도리를 좀 더 잘 가르쳐 주지 못한 것까지 말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잘합시다.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남은 삶을 함께 의지하고 가야 할 유일한 동반자가 아닙니까? 배우자의 변화, 흰 머리칼, 주름진 얼굴 등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남은 사랑의 재임을 잊지 말고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특히 우리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횡적 전도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전도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종적 전도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 그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통해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영락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사랑이 가득한 따스한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으로 인한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만남**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영락교회가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고 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새신자로 오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한동안 교회 밖에 있다 새롭게 돌아오는 이, 이들과 함께 열싸안고 교회 곳곳이 성령의 기쁨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있다. 일선 전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집사들과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새교우 간증, 선교부 부장 정천우 장로의 글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소식을 전한다.



2017년 총동원전도주일 여러 모습

전도 현장

누군가 블러주길 기다리는 사람들

최주철 은퇴집사(용인·화성교구)

무덥던 여름이 다 지날 무렵인 작년 어느 날, 교회 만남카페에서 전에 같이 전도훈련을 받았던 백 권사님을 우연히 만났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권사님의 친언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언니는 20대 때 영락교회에 출석했는데 인기도 많았고 교회 활동도 무척 열심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슬슬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주 발을 끊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등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 계획을 짜고 드디어 언니 댁을 방문했다.

맛있는 차를 대접받으며 나는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복음을 제시하고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다. 언니는 내 기도를 따라 하시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다음 주일 우리는 교회에서 반갑게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언니가 계속 눈물 흘리며 우느라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니는 그날 새신자로 등록하고 교육도 받기 시작하셨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다. 언니는 가끔 투정 어린 말씀을 하신다 했다. “난 진작 교회 나오려 했는데 누구도 ‘교회 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어 못 나왔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랫동안 교회에 빠지신 분들은 누군가 옆구리를 썩 찌르며 “오늘 교회 같이 가자”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 안수집사(성남·분당교구)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대형 병원들은 병균에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병원 각 층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대형 병원 전도는 출입 통제 때문에 더 이상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필자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구했다. 위기는 오히려 전도 현장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 병원 전도 현장은 두 곳이었는데 지금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여섯 곳이나 된다. 매주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 70~90명 정도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50~70명 정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

군부대는 예전보다 복음 전하기가 수월치 않아졌다. 전도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인권보호법 등의 영향을 받아 이전처럼 장병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전도의 문은



군인들에게 선교하는 모습(박영식 안수집사)

늘 기대 이상으로 열릴 줄 믿는다. 영락교회는 요즈음 매달 40명 정도의 전도훈련 수료자가 영락 교회와 관련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100~200명 정도의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군부대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병 비율이 부대원의 80% 정도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 복음을 전해들은 장병의 90% 정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도의 기쁨

정세영 집사(서대문·은평교구)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나서 동네 병원에 가 매주 한 번씩 꾸준히 전도하고 있다. 동네 병원은 집에서 가까워 퇴근 후 한두 시간만 내도 전도할 수 있어 좋다. 환자들의 경우 시간은 있으나 몸은 아프고 마음도 외로운 까닭에 복음을 전하면 제법 들어 주는 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면 정말 기쁘다. 사실 힘들고 외로운 그들과 대화할 때면 오히려 내 자신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가끔 성령님이 일하심을 생생히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흔치 않게, 복음을 전해 듣던 이가 뜻밖의 말을 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언제가 중병에 걸린 분이 복음을 전해 듣더니 “나는 천국 가지 않고 지옥에 가 전도를 하겠다” 하여 놀랐던 경우가 그중 하나다. 아마도 복음의 소중함이 깨달아지자 솟아나는 전도에의 열정을

그리 표현한 것이라.

교회에 가면 돈이 듣다고 두 번이나 대화를 거절했던 102세 된 할머니가 계셨다. 얼마나 돈 때문에 고생하셨으면 저러실까 싶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기를 다 마치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였다. 나이가 한참 어린 나에게 깍듯하게 고맙다 치하하셨다. 우리가 전도하면 천국에서 듣게 될 칭찬이 크겠지만, 땅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크다.

넘치게 찾아오는 전도의 기쁨

윤극명 은퇴안수집사(서초교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을 만나 병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분은 가끔 교회에 출석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며 눈물을 보였다. 결신과 치유의 기도를 해드리니 병도 다 나은 것 같다고 기뻐하며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매주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였다.

옆 병상의 천주교 배경의 환자가 자기에게도 복음제시와 치유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믿었던 그분도 진지하게 듣고 결신하며 기뻐하였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 보이지 않던 옆 병상 환자의 보호자가 중환자인 모친을 위한 기도와 복음제시를 요청하였다. 어머니는 말기 암을 앓고 있는데 남은 삶 동안 천국의 기쁨을 갖고 살다 천국 가시도록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잠깐 기도드린 후 성령님만의

지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분에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하며 복음전문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전했다. 그분은 눈을 뜨더니 기쁜 표정으로 결신하고 결신기도도 미약하지만 또렷이 따라하였다. 보호자인 딸 내외분도 함께 결신하였다. 그분은 천국에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괴로웠던 표정이 딸과 함께 환하게 밝아졌다.

한 병실에서 다섯 명이나 결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환우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정세영 집사)

천국 닮아가는 곳이 여긴가 봐

최경식 성도(종로·성북교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또 옆을 봐도 모두 미소 짓는 얼굴들이다. 뭐가 좋아 저럴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또래들은 끼리끼리 떼를 지어 조잘대면서 마당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다. 뜨거운 여름날인데도 잠시 귀국한 해외 선교사들은 천막 안에서 선교과정의 경험과 그 열매들을 들려주느라 바쁘다. 여러 봉사팀들은 자기네들의 봉사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함께 봉사하자고 유혹(?)하기도 하고, 어느 중년 신사는 훌러간 추억의 옛 노래를 색소폰으로 구성지게 연주하여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도 한다.

예전에 봤던 명화 <벤허>, <십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그것도 공짜로) 기회를 50주년기념관 지하 소강당(영화상영관)에서 제공하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맘대로 볼 수도 있다. 만남의 광장에서는 향기 좋은 차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주일 점심은 재료값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다. 가끔은 짧은 남녀의 웨딩마치곡도 울려나오고, 짧은 학생 음악 동아리의 신나는 연주도 광장에서 펼쳐진다.

예배시간에는 정성껏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져 정신적 양식이 되고, 여기에 천상의 소리와도 같은 찬양대의 찬송가가 감동을 주어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여운 때문에 자리에서 쉽게 일어서지 못하기도 한다.

이것이 지난해 5월에 영락인이 되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병아리 성도, 그렇지만 나이는 석양을 바라보는 성도인 나의 눈에 비친 영락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아! 이 어지러운 세상에도 천상의 세계를 닮아가려는 세상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하며 이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무한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는 영락교회이다.

1958년도에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간헐적으로 들여다 본 성경책을 마태복음부터 다시 본다. 하나님 말씀에 감읍하면서 진작 여기에 왔었더라면 마음의 고생을 그토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영락교회 문을 두드렸으니 그 문을 열고 맞이해 준 교회에 감사하며 열심히 다니려고 한다. 인생 4/4분기에 영락에 와서야 행복을 찾은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락전도주일의 첫 깃발, 차고 넘치는 영락교회의 첫 서막



정천우 장로
강남교구
선교부장

히브리인들의 합창, 영락교인들은 전진하리

사람들이 특별히 기뻐할 때가 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다. 기뻐 껑충껑충 뛸 때도 있다.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다. 세계인이 모두가 인정해야 마땅한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창세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소식이다. 사람들은 그가 지구 상에 오신 때를 기준해 모든 날짜를 셈하고 역사를 기록한다.

영락교회,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

영락교회의 처음 이름은 ‘베다니교회’였다. 실향민들이 가족·친지·친구들 소식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교회에 함께 가기를 권했다. 베다니는 예수님 이 승천하신 곳이다. 베다니교회는 종종 ‘베다니전도교회’로 불렸다. 승천하신 곳 이름도, 그때 주신 소명도, 교인들은 입에 달고 다녔다. 영락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외쳤다. 영락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민족 복음화를 소명으로 보았다. 군목제도 도입, 군선교연합회 설립, 군부대 교회당 건립, 장병 세례… 모두를 주도했다. 한편, 차세대 학생들이 눈에 밟혀 학교법인 대광·보성·영락학원을 차례로 세워갔다. 또한 어려운 이들도 벼려둘 수 없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세웠다. 월드비전으로 이름이 바뀐, 전쟁고아들을 위한 한국선명회가 영락교회 본당에서 시작됐다.

아시아 선교를 위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립도 주도했다. 교회는 커졌고 개신교는 부흥했다.

김운성 목사 부임, 새로운 시작

우리는 분단을 슬퍼하며 남쪽 땅끝에서 북쪽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늘 기도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노래하던 히브리인들이 고향에 돌아간 것처럼, 영락교인들로 복음의 고토를 밟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혹 이 때인 줄 누가 알겠는가. 영토·인구·주권을 갖추고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올해로 70년. 뜻깊은 이 해에 김운성 목사가 영락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말씀에 영락교인들은 새로워지고 있다. 마음을 둘 곳 없어 방황하던 이들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영락교회를 찾아온다. 영락교회는 다시 차고 넘칠 것이다. 이제 서막이 열렸다. 영락행전이 시작된다. 2018년 ‘전교인전도주일’의 첫 깃발은, 영락교회가 ‘영락전도교회’로 거듭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활력은 새로운 소명 “7천 5백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외치며 전진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안팎에서 복음 전하는 앞의 이야기들처럼,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각자의 이야기를 써 가면 어떨까? **만날**

특집 //

주님과 사귀는 가정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귐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새가족 교우와의 사귐의 영성
- 이 모두 주의 은혜
 -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 주님과 사귀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귐

사귐의 영성과 기독문화



박규성 목사
강남교구
목양부, IT미디어부
권사회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걸려 있는 수많은 명작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맞은편에 걸려서 덩달아 유명세를 좀 타게 된 그림이 있는데,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파올로 베로네제’(Paolo Veronese, 1528?~1588)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그림1)입니다. 그림의 크기가 가로 폭이 약 10m(677×994c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그림인데 수백 년 전에 이처럼 큰 캔버스에 유화로 이런 대작을 그렸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베네딕토회 소속 수도원인 ‘성 조르지오 마조레’ 성당에 있는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밀라노에 있는 ‘성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도원 식당 벽면에 이러한 식사 장면을 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1) 파올로 베로네제, 가나의 혼인잔치(Wedding at Cana), 1562~63

이 그림은 제목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그리고 있습니다.(요한복음 2장 1~11절)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며 어머니의 간접적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가는 예수님 바로 정면 아래에 황금식탁보가 둘려 있는 테이블 위에 모래시계를 숨은 그림찾기처럼 그려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 모래시계에 숨겨진 예수님의 때를 모른 채 흥겨운 잔치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는데 우측 아래를 보면 하인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따르고 있고, 연회장이 서서 그 포도주 맛을 음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로네제는 빈부격차와 남녀노소, 인종과 국가까지 초월해서 100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들을 그림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사실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사귐의 만찬일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왼쪽 테이블은 각국의 왕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는 흑인 왕족은 물론 흑인 하인도 있고, 터번을 쓴 이슬람 왕족도 있고, 검은 머리의 동양인 왕족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 귀부인은 떨어진 포도주를 기다리다가 황금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쪽에는 앵무새를 들고 있는 난쟁이 어릿광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 앞에는 하얀 개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심지어 오른쪽 식탁 위를 보면 아주 작은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식탁 위를 걸어 다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가운데 난간 뒤쪽에는 많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 바로 뒤에는 커다란 칼로 고기를 손질하는 요리사도 보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옷차림은 다른 식탁에 앉아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화려한 옷차림과는 사뭇 대조될 정도로 수수하고, 다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살짝 후광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그림이 가나의 혼인잔치임을 짐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로네제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한 그림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건 당시 베네치아가 세계무역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을 접하고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한 베로네제는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온 천하 만민이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될 날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화가가 의도했던 안 했든 간에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사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로네제의 동생인 ‘베네딕토 칼리알리’도 화가이자 화실을 운영하며 형이 그린 그림들을 관리해주었는데, 그림 속 연회장이 바로 베로네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가 놓인 식탁 주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작은 철로를 바이올린처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화가 베로네제 자신이고, 주위에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바로 화가와 동시대의 유명한 화가들인 ‘티치아노’와 ‘턴토레토’입니다. 사실 화가인 베로네제에게는 화가인 동생도 경쟁자이고, 티치아노와 턴토레토 역시 쟁쟁한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로네제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중요한 인물로 배치하고, 그런 경쟁자들과의 사귐까지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로네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사귀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들만의 사귐은 복음의 사귐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사귐은 결코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로네제의 이 그림은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스러운 예수님의 성화 속에 하인은 물론 흑인과 동양인, 심지어 어릿광대와 개까지 그려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뒤 이번에는 앞의 그림보다 폭이 더 큰 약 13m에 달하는 대형 그림(555×1280cm)을 역시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는데 제목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도 성 지오반니 파올로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교황청이 베로네제를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만있지 않고, 어떻게 감히 불경스럽게도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느냐며 베로네제를 종교재판에 소환하여 그림을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로네제는 화가의 창조적 자유 등을 이유로 버티다가 그림의 제목을 ‘레위가의 향연’(그림2)으로 바꾸는 것으로 합의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역시 흑인과 어릿광대가 등장하고 있고, 왼쪽 경사계단에는 노란 옷에 흰 망토를 두른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들고 도망치며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귐이자 이웃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누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림2) 파올로 베로네제, 레위가의 향연(Feast in the House of Levi), 1573

에 초대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혼인잔치의 모형과 같은 이 땅의 교회도 그러한 온전한 사귐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 사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과 어둠과 사귀며 도망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끼리끼리의 이기적인 사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영락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사귐을 맛보고,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새가족 교우와의 사귐의 영성



황광용 목사
종로·성북교구
새가족부, 친교부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만남과 사귐’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맷음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들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 곧 사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십니다. 먼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그리고 새가족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영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순하나 바른 지향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영성은 거룩한 방향, 바른 지향점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이자 지향점이신 주님을 향해 바른 직선을 긋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목적지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목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것이 선명해지기보다 오히려 희미해집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신앙의 본질을 잊기도 합니다. 세련되고 훌륭한 종교생활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복잡한 신앙생활에 비하면, 새가족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새가족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들의 관심이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체험합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등록하시는 분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봐요”라는 배우자의 유언에 마음이 무너져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라는 자녀의 말을 듣고 교회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분들에게는

‘교회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집중은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2. 주를 향해 품었던 처음 사랑을 다시 키워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품었던 처음 사랑을 그리워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기도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포기해 버립니다. ‘역시 사랑은 변하는 것 이구나’라는 위로를 스스로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가족들의 순수하고도 뜨거운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도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도 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나중에는 그들의 신앙도 나처럼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부러워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목적은 부흥도, 축복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식다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영원으로 이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뜨거움을 지펴내야만 합니다.

3. 질문들을 통한 점검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새가족과의 만남과 사귐을 지속해나갈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분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리, 이단, 성경 각 권과 본문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들은 우리가 했던 질문입니다. 물론 그 질문들 중에는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도움을 주는 책들과 자료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실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식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신앙의 확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신앙의 점검과 돌이김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십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서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롬 8:28) 특별히 새가족들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랑을 뜨겁게 시작한 분들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영성 또한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만남**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정소원 권사
노원교구
경조부 장례지도사

푸르른 신록의 계절에는 유년 시절이 아스라한 보랏빛 되어 눈앞에 떠오릅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란 시절이지요. 파란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 한가득 가지각색 크고 턱스러운 장미꽃 송이들이 피어 있어서 오뉴월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마당에는 외할아버지께서 손수 파서 정원석을 둘러 만드신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옆집에 사는 친구와 연못 속의 빨간 금붕어, 눈이 툭 튀어 나온 까만 금붕어들을 소꿉냄비로 잡았다, 놀렸다 하며 놀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47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어린이날 선물’입니다. 예수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어머니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된 것은 훨씬 더 후의 일입니다. 중등부 예배 보다는 주로 3부 예배를 드리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쳐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14년간 고등부에서 양지와 음지 사이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소명을 깨달아 가는 일

은 교사로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연초에 6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연말에는 24명으로 우리 반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인생이 계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작스레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 이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나…’ 당시 아들은 대학졸업 후 군복무중이었고, 딸은 대학졸업을 1년 남짓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매일 벤엘기도실에 끓어 엎드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는 가장이 되어 생활을 책임지는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교사는 못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봉사도 꼭 할 수 있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특히 과부의 기도를 멀시치 않으시는 주님….

지금 저는 경조부에서 성도들의 장례예식 입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때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의 죽음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의 작은 손짓에 위로를 받으실 때면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열여섯 살 되었을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시신에 외할머니와 함께 수의를 곱게 입혀 드렸던 일은 우연이 아니었



어머니(뒷줄 가운데)부터 손녀들까지 4대가 함께한 정소원 권사(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가정 |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나 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그날따라 유난히 외 할머니가 생각나서 한걸음에 달려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외할머니의 귀에 4시간 동안 찬송가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 밤에 외할머니는 정말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를 둘 시 사랑해 주셨던 그분들, 언젠가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년째 경조부에서 섬겨오는 동안에 아들과 딸은 각각 청년부, 대학부 안에서 제 짹들을 만나 결혼하여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이 꿈이라면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아들이 찬양대로 다시 섬길 수 있기를 신음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편 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시절 사윗감으로 마음에 짐찍어 두었던 학생이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뒤 실제로 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남편도 천국에서 기뻐할 거라 생

각합니다.

예배와 전도, 교육과 봉사의 균형을 잘 맞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자손이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85세이신 어머니께선 지금도 일어성경반에서 임원으로 정성스레 섬기고 계십니다.

딸과 사위는 올해 집사 직분을 받고 현금위원회으로 봉사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제가 처음 집사로 임직 받았을 때보다 더 떨리고 감사와 감격이 몰려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이어나가고 더불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하며 어디서든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두 명의 외손녀들도 유니개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통해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거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김수아, 김수혁
성동·광진교구
고등부 남매 교사



부모님과 교회 뜰을 걷는 김수아(오른쪽 두번째)와 김수혁(맨 왼쪽) |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김수아

저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작년 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찬송이 입에서 끊이질 않으셨고, 아침저녁으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던 할머니께서 떠나시고 우리 가족에게 무얼 남기고 가셨나 생각해 보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이 소중함을 더 간절히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비록 이제 할머니의 찬송 소리와 기도를 들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물려주신 ‘믿음’은 우리 가족과 제게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할머니께서 ‘믿음의 가정’을 선물해 주셨다면

부모님께서는 제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교사교육반을 수료하면서 제게는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감명 깊었던 내용을 간증했는데 “교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게 부모님은 여기서 말하는 ‘교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앞에서 항상 먼저 예배자가 되셨고, 예배자로서 제게 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스스로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을 따라 임마누엘찬양대에서, 동생과 함께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

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묵묵한 기도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제가 ‘가족’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배운 그 ‘사랑’을 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수혁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지금껏 성장했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기도 생활에 익숙해졌고, 저의 기도제목은 ‘언제나 우리 가족에게 최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게 되었고, 모두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바로 좌절하기보다는 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고민했고,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희귀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염증으로 두통과 앙구통을 호소하며 오랜 병원생활을 하였습니다. 항상 느끼던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이 시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밤낮 가리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엄마가 대신이라도 아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

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수혁아,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 나 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그렇기에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애초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모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가운데 누나와 저는 현재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저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날**

주님과 사귀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

전택규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고등부 교사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한 분만 생각하며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정 여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봉사를 하면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년 후, 주일학교 공과를 같이 하고 주일에 가족과의 시간 활용에도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 아내도 고등부 교사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가는 길은 언제나 고등부 학생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던 ○○가 오늘은 나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꼭 왔으면 좋겠어요.” “시험기간이라며 공과시간 5분만 하자고 해서 제대로 못 했어요.” “오늘 공과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고등부 교사로 섬기니 주님께서는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자녀들에게도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 모난 저를 하나씩 다듬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배 중에도 떠들기만 하는 여학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과 공부도 힘들게 되자, 저는 하나님께 그동안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주 아내와 마트에 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 서너가지를 사서 예쁘게 포장하여 공과가 끝난 후에 주는 방법으로 그 학생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4명의 학생들을 맡았으나 연말에는 1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로서 자격이 부족한가 싶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으로 꼭 살아 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2016년 한 해 만 더 하자고 하여 교사를 계속하면서 연말에 이사 할 계획을 하고 집까지 준비하여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건강이라면 자신하던 저는 2016년 10월말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면 제대로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어 주일을 지킬 수도 없었겠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혈전용해제로 정상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5개월이 지나 건강이 회복되어 2017년 4월부터 다시 고등부에서 신입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저를 낫추신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남학생을 보내 주셨습니다. 중3때까지 교회에 다닌 이 학생은 중학교 내내 전교 수석과 고등학교 수석 입학을 한 뒤에 ‘교회 출석은 대학 입학 후로 미루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고3이 되었는데도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자 한계를 절감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희망은 의예과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어 난치병을 연구하여 환자를 돋고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되어 남을 돋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이 학생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이 학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의예과가 아닌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꼭 의사가 아니면 안 되겠냐?” “마음에 차지 않



고등부 부부교사 전택규 집사·김순혜 권사 | 사진 유승현 기자

겠지만 간호사로 부르면 네가 순종하겠느냐?” “의료인으로의 봉사는 의사만이 아닌 간호사로서도 중요한 일이 많은데 순종하겠느냐?”

순종한 이 학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학생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사로 순종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지만 고등부 교사로 29년째 봉사하는 이 시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1명이라도 제적시키기 전에 여러 번의 상담과 복잡한 절차로 제적을 막아보려 애썼으면서도, 교회학교에선 보내주신 학생들을 늘리기는커녕 매년 몇 명씩 잃어버리고도 내 잘못이 아닌 학생들 탓으로 떠넘겼고, 공과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 했고, 학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 한 교사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영락고등부 학생들이 남보다 못한 성적이나 외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만남**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건 가장 큰 축복

양영재·이유림

매달 주님을 위해 영락을 섬기는 젊은이들을 만나 보는 〈영락 지금〉!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젊은 시절부터 교회 품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믿음의 커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번 호를 읽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영재 : 안녕하세요. 시온찬양대를 섬기다가 현재는 자녀 육아를 위해 잠시 쉬고 있는 양영재입니다.

유림 : 저는 시온찬양대, 베다니찬양대에서 솔리스트로 섬기다가 육아를 위해 잠시 내려놓은 이유림입니다. 지금은 유치부 반주로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서로의 어떤 점에 끌리게 됐는지, 또 서로에 대해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재 : 호산나찬양대에서 선후배로 만났어요. 당시 지금의 아내가 털털하게 국밥에 밥을 말아 먹거나, 족발을 양배추에 싸서 먹는 의외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지갑에 할인 쿠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하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죠. 그렇게 20대 절반 이상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성장 배경, 신앙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많이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공감을 많이 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유림 : 연애를 7년 정도 했어요. 남편을 만난 건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하고자 하는 일, 목표가 뚜렷한 모습, 또 매사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에 일생을 같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웃음 코드가 잘 맞아요. 서로 설명하지 않아도 왜 웃는지 알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토끼처럼 너무 예뻐요(웃음).

영재 : 장인어른, 장모님의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셨고, 아내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 교회에 나올 때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영재 : 결혼 전후보다 자녀 출산 전후가 많이 달라요.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주일 아침이 굉장히 바쁩니다. 10분 단위로 준비하고 움직여야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더라고요.

유림 : 저도 출산 전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아이 둘을 준비시켜 예배에 늦지 않으려면 화장조차 못하고 나오는 날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연애를 두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연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애 이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영재 :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누가 내 얘기를 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아픔을 준 상대를 계속 봐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교제를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연애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담담히 하라는 건 제3자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서 호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유림 : 교회에서의 연애는 축복이지만, 상대방과 그만큼 대인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경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가족이 다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요.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회의를 가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영재 : 요즘은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재밌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의견을 조율할 때 드는 에너지, 결혼 후 배우자가 자라온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드는 에너지, 자녀를 양육하며 오는 인내와 고통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시간이 없어져서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랑 안에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힘들지만 매일 감동하며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저와 아내도 살아가다 보니 함께 전쟁터에 나간 전우가 되었지만(웃음), 웃는 날도 많아요.



유림 :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대를 이어가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혼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요.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옳지 않아요. 자신이 낳아질 때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낳아진다고 생각할 때, 자신도 배려 받고 있다는 것, 상대방도 나와 같이 배려하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돼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영재 : 주일에 예배를 꼭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예배를 드리고 영아부, 유아부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자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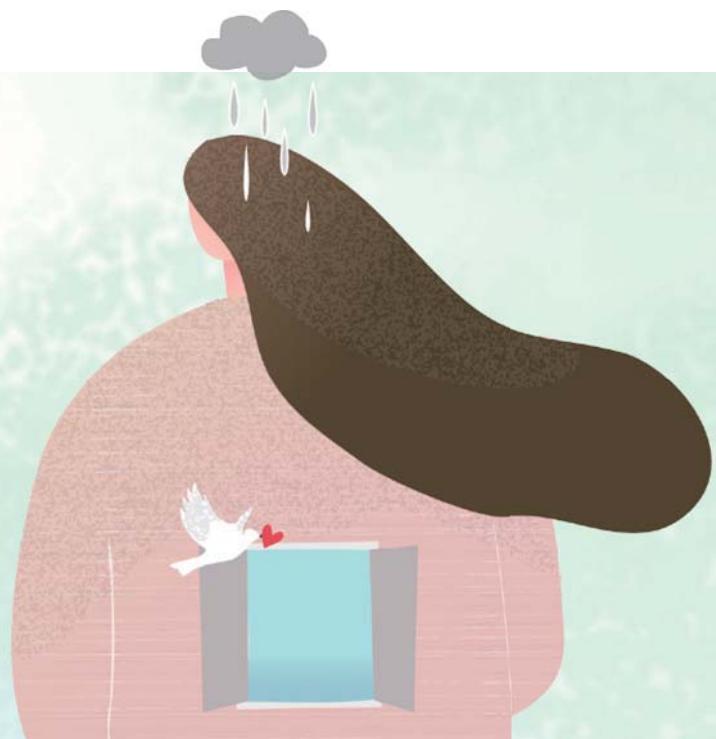
유림 : 제일 중요한 건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제가 생각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의 연인들과 예비부부 또 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영재 : 영락교회 안에는 수많은 커플과 예비 부부, 또 이미 부부가 된 가정들과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모두 대단하고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림 : 오래오래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짹꿍들이니, 오래도록 건강하고 또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한국인의 기독교윤리

최근에 한국사회는 ‘미투운동(나도 성폭력의 피해자였다)’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여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최소한의 법이라고 하는 도덕과 양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모두 버렸기 때문이라.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다양하다. A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한다. B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자기에 대한 악의적인 음모론이라고 한다. C는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가해자들은 동일한 범죄를 행하였지만 그들이 대응하는 방식과 행동은 이와 같이 다르다. 그들은 성폭력의 가해자이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윤리의 문제가 들어 있다.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윤리란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바로 답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독교와 윤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바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기독교윤리는 기독교 그리고 윤리와 무관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면 윤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윤리는 인간의 삶(생활)과 관련된다. 독일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렌토르프(T. Rendtorff)에 의하면 윤리는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는 이론’이다. 인간의 행동과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의 행동과 삶을 만들어가는 특정한 이론이 있다. 윤리의 한자어를 생각해 보자. 윤리의 윤(倫)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뜻이고, 리(理)는 이치, 곧 법칙을 뜻한다. 윤리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공유되는 이치와 법칙이 있음을 의미한다. 윤리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면 기독교는 윤리와 무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보자.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특별한 이치가 있지 않은가? 그 법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요약하면 기독교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을 형성하는 특별한 이론이며 법칙이다.

둘째, 윤리는 도덕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윤리와 도덕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가 아니란 말인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사용되는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윤리는 이치와 이론과 연결된다. 반면에 도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판단-선 또는 악-과 관련된다. 도덕은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아니면 악한 행동인지 그것을 판단할 때 사용된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것이며,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에서 정리한 윤리의 개념을 따른다면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셋째, 윤리는 독일의 신학자인 트릴하스(W. Trillhaas)가 강조했듯이 인간의 선한 삶에 관한 질문을 가리킨다. 구약성경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이미 강조하였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삶은 불의한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선한 삶에 대한 질문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이다. ‘미투운동’의 가해자는 왜 비도덕적인 악한 행동을 했을까? 그 가해자가 선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바로 거기에 기독교윤리가 있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윤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엡 2:8)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자랑을 막기 위함이다.(엡 2:9) 이처럼 ‘오직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바로 이어서 강조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식은 분명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한다.(엡 5:18)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이 포함된다.(갈 5:22-23) 기독교와 윤리는 상관이 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상호관계성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독일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호네커(M. Honecker)는 개인윤리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에 기초한 윤리로 이해한다. 사회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들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조건(제도)을 강조하는 윤리라고 한다. 가령, 착한 마음을 지닌 한 개인의 적선은 거지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은 개인윤리적 차원의 도움이다. 사회윤리는 개인의 도움이 일관된 정책을 통해 지속되길 원한다. 사회윤리는 자유, 정의, 평화 등과 같은 ‘공동 선(Common Good)’을 사회제도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상호관계성의 특징을 갖는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둘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굶주린 거지의 요청을 외면하는 한 개인이 정부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실제로 도우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을 보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윤리는 먼저,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는 이론이다. 둘째, 윤리와 구별되는 도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선악 간의 판단과 연관된다. 셋째, 기독교윤리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한 삶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다. 넷째, 기독교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구별되고 그 둘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윤리를 생각해 본다. 한국 교회의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을 이끌어 가는 이론은 무엇일까? 한국 교회의 행동과 삶을 규정하고 인도하는 이치는 무엇일까? 그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것”(미 6:8)을 제대로 실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빌 1:27)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개인의 삶과 사회제도 안에서 더 많이 맺어가는 한국 교회를 기대해 본다. **만남**



로뎀나무 같은 상담부 친구이고 싶은 청소년상담



지동춘 장로
안양·수원교구
상담부 부장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 문제들을 호소하는 영락교회 교인들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상담부는 상담사역, 교육사역 그리고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담사역은 매일, 매주 교인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화상담(화요일~주일 09:30~20:00, 2275-1004, 1007)을 통하여 고민을 들어주고 있고 가정, 청소년, 교통, 법률, 세무, 노무, 금융,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상담(2280-0171 사전예약)을 하고 있으며 결혼정보상담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청년포함)들은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과 진료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가 제한적이고 놀이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지나친 학습시간과 더불어 수면부족, 성적과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 노출,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게임 과다 등으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위기의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는 대인관계(27.1%), 학업 및 진로(17.8%), 정신건강 문제(12.2%), 일탈/비행(9.5%), 컴퓨터/인터넷 사용(8.4%), 가족과 가정(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는 불안한 가정환경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불안, 고민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모님에 대한 불만, 학습에 대한 동기부족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상담을 받거나 청소년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첫째, 가정에 청소년들이 있다면 지켜봐 주십시오. 얼굴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고민에 빠진 청소년들은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굴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들어주는 친구,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줍니다. 한마디를 나누더라도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반영적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영적 경청은 대화의 초점은 대화의 초점을 지금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는 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매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즐거움보다 고민이 더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아낌없이 지지해 주십시오. 미숙하고 못 하는 문제에 대해 야단하고 질책하기보다는 현재 열심히 하려는 모습, 질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으로 지지해 줄 때 스스로 해보려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부모와 가족이 있음을 아는 청소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아는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청소년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신의 성격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자신의 흥미를 알지 못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소년들,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청소년들, 부모님이 너무나 자신을 몰라주는 청소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 행복과 감사, 기쁨으로 가득찬 삶이 되도록 상담부가 곁에 있겠습니다. **만남**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황관중 선교사
M국



Y지역에서 차로 3시간가량 남쪽으로 가다 보면 P시가 나옵니다. 이곳은 M국 남부 삼각주 지대의 관문으로 쌀 농사와 수산업이 주를 이루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P시에는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남쪽 바다까지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부락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P시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제가 영락교회 선교부 전임전도사로 시무하던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5월 3일, M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사이클론 피해를 입었고, 하루 만에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 13만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사이클론이 직접 상륙했던 P시 지역은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체제 아래 독재를 하고 있던 M국 군부는 이 피해를 국내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으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들도 연합하여 M국을 돋게 되었고 영락교회도 기꺼이 M국 구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저도 M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고 이후 M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M국에 오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사이클론 바람 타고 M국에 오게 되었다는 대답을 지금도 하곤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2월 M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저는 어떤 형태로든 P시에서 선교사역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친 상황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2년간은 언어습득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을 방문하는 것이



P-시에서 의료선교 중 진료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 모습

어려웠고 기회를 내서 방문하더라도 언어문제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당시에는 제가 후원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저를 기쁘게 맞아주었지만, 선교사로 M국에 입국하자 저는 어느 사이 그분들의 견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많은 지원금과 구호물품들이 군부의 배를 채우는

자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군부와 한 통속 일 것이라는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언어습득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청년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계속 많아지는 선교사역으로 P-시는 점점 저의 머릿속에서 잊혀 갑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2014년부터 영락교회 의료선교부의 의료선교 활동이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지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선교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사역으로, 의료행위와 선교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M국과 같이 폐쇄적이면서 불교가 국교처럼 여겨지는 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그런데 2015년 영락교회 의료선교 당시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역 몇 달 전부터 의료선교를 위해 마을 유지들과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바로 하루 전에 불가 통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교팀은 M국에 와서 첫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둘째 날 사역이 취소되면서 이후 일정들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급하게 인솔 목사님과 장로님, 단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M국 청년 D가 저에게 무슨 일인지를 자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는 청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의료선교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는데 D는 저희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주위를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계속 저를 주시하기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P시로 가실래요?”

“P시?”

“네, P시 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어떻게...”

“저의 아버지가 P시 군수세요.”

그렇게 해서 의료선교팀과 저는 다음 날 P시에서 모든 사역을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했던 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단원 어느 누구도 P시의 사역이 하루 만에 급히 준비된 사역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 이후로 저는 P시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사역의 필요성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과 기억에서는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곳을 잊지 않으시고, 사이클론의 바람을 통해 저를 M국으로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저의 생각과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교에 임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복음으로 양육된 청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P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P시의 한 마을을 일차 목표로 해서 마을 개발과 함께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 M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늘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남**

엄마가 먼저 앱을 지웠어요

- 우리 가족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일은 초등학생부터 고도의 전문가에게 이르기까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도 다양합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PC 이외에도,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디지털 파일을 저장할 때 작업한 컴퓨터 내부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의 중앙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게 한 공간)에 저장해 둔 파일을 열어 문서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문자와 문서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저는 단톡방을 학부모 대화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超)연결사회’에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 각종 정보를 챙기기 위해서라지만, 수시로 SNS와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귀가 후에도 끊이지 않는 일 때문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이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들과 함께해야 할 귀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엄마, 컴퓨터 그만 하고 나랑 놀아요”라며 무릎 위로 파고드는 귀여운 아이와 씨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에 저는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앱을 스마트폰에서 지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실천입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 당분간 이 두 프로그램은 PC로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앱을 지우고 나니 다소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덕분에 스마트폰에서 조금은 놓여나게 되었습니다.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일러스트 윤진경 기자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발달로 우리는 거의 한순간도 쉬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두세 살 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줘어 주고 자기 시간을 갖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용하는 시기가 영유아시기로 앞당겨지는 가운데, 저는 ‘디지털 육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육아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가정 내 이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해 주로 듣는 이야기는 가급적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기를 늦추라는 것과,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팝콘처럼 즉각 튀어 오르는 자극에 익숙해져, 자극이 별로 없는 일상생활

이나 책 읽기에는 무감각해진다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무서운 경고로 제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과 미디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피어슨재단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 검토한 2010년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주의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산만해진다며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유아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비디오, DVD 등을 잘 사용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기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너무 이른 시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발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아기들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연구들은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면 상황에서 일대일로 반응해 주는 어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약간 높은 목소리 톤으로 천천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온전히 아이에게 일대일로 주의를 기울이며 짧고 쉬운 말로 반복해서 반응해 주는 어른의 존재가 아이의 언어와 정서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오디오로 언어 자극에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람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보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느끼며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돌 정도까지의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그 방식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냥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아들은 마치 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통적인 읽기와 쓰기뿐 아니라, 키보드 조작이나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심리적·운동적 기술과 함께, 웹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 기술과 같은 도구 사용 능력을 포함합니다. 유아들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창성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를 일상생활과 공부의 방해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

경 그 자체이자, 살면서 만나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배우며, 다양한 즐거움을 찾는 원천이자 문화로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아이들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조절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디지털 미디어에 ‘과의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는 부모가 스마트폰에 과의존인 경우 자녀의 과의존 또한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발달로 인해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해 막연하게 걱정하거나 무조건적인 제한을 강요하기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적절히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한 자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만남**

정현선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런던대에서 미디어리터러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디지털 미디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우리학교)라는 책을 냈다.

주님과 사귀는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올해 <가정예배학교> 처음 열어… 5월 20일부터 5주 과정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거룩한 의무, 가정예배

우리 교회가 지닌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와 가정의 연계 사역이다. 가정예배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믿음의 가정이라면 귀하게 준수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다. 올해 처음 시작된 <가정예배학교>는 이처럼 귀중한 교회-가정 연계 사역을 통해 믿음의 대 잇기에 동참하는 가정을 양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정예배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의무’

“가정예배?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안 나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사실이다. 현대 가정은 너무도 바쁘다. 직장 다니고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어른들만 바쁜 것이 아니다. 다섯 살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한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여간해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이처럼 바쁘고 거세게 돌아가는 일상의 수레 바퀴 아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드릴 시간을 찾는 것은 그래서 여유가 아니라 의무라야 가능해질 수 있다. 가정예배가 소중하고 은혜로운 ‘의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교역자들이 설파한 바다.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부모들에게 미국 남침례신학교 기독교교육과 티모시 폴 존스(Jones) 교수는 묻는다.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대화한 적이 몇 번인가요?” 존스 교수의 연구에서는 수많은 믿음이 좋은 부모들이라 해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의 수많은 부모에게 던져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존스 교수는 “믿음의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일예배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1회 가정예배학교 일정

- 일 시 : 5월 20일 ~ 6월 17일 주일 11시 30분~13시 30분
- 장 소 : 50주년기념관 503호
- 참여 인원 : 20가정(40명)
- 강 사 : 백성우 목사, 신흥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주차 5월 20일	가정예배 터 잡기 & 기둥세우기 -부모의 회심 & 가정의 정원사 되는 부모 & 기독교 세계관
2주차 5월 27일	가정예배 벽돌 쌓기 - 말씀과 기도
3주차 6월 3일	가정예배 지붕 덮기 - 기억, 교제, 섬김의 공간 만들기
4주차 6월 10일	가정예배 디자인하기 - 실제적 가정예배 꾸미기
5주차 6월 17일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 - 워크숍

가정예배 모델, <패밀리 데이>

우리 교회가 제시하는 가정예배의 모델은 일주일에 한 번 <패밀리 데이>를 갖는 것이다. 온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을 정해 거실이든 부엌 식탁이든 어디든 장소를 정해 예배드린다. 이때 텔레비전과 휴대폰은 꺼놓는다. 예배 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찬양 음원과 성경 말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매주 예배 자료는 이달의 찬양으로 시작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 생각을 나눈 뒤 가족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기(나누기)를 할 때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어린 자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태도로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과 매주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한 성도는 “아이들이 가정예배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즐겁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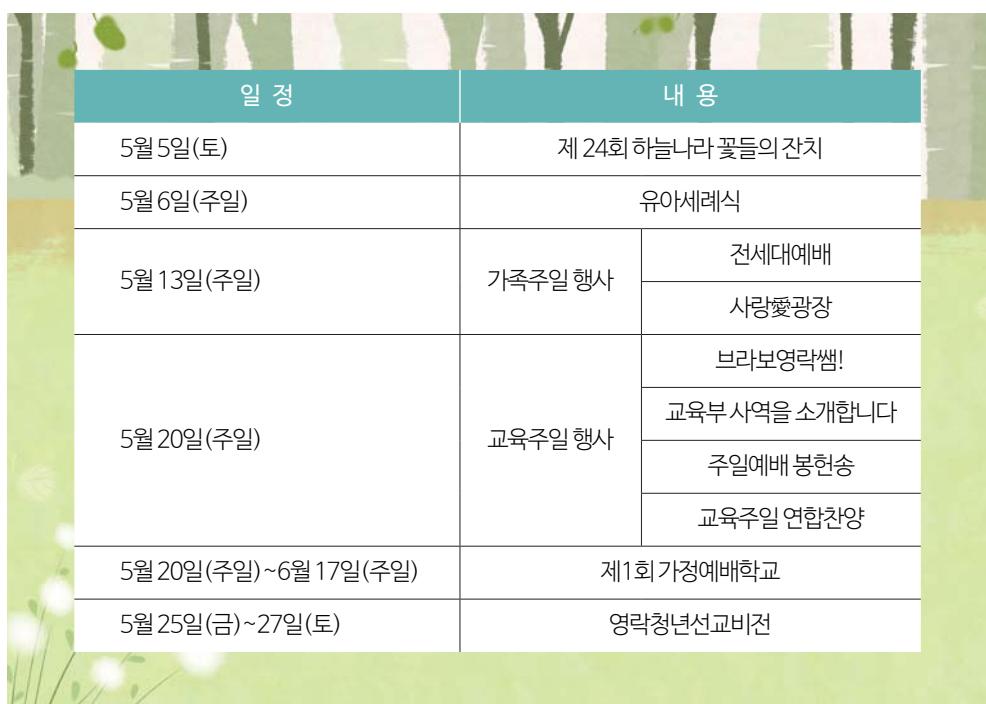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한다. 평소에 있던 일들을 끌어들여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그날의 말씀을 놓고 자기 생각을 펼칠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반박하거나 묵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부활 신앙으로 서는 가정

부활절이 있는 4월과 가정의 달인 5월, 그리고 6월 우리 교회 가정예배의 주제는 〈부활 신앙으로 서는 가정〉이다. 특히 5월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 ‘믿음의 효도’ ‘한 부자의 가족 사랑’ ‘아이가 아이를 키우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의 아름다운 가정을 묵상하게 한다. **만남**

제공 교육부

5월 가정의 달, ONE-POINT 교육주간 사역



일정	내용	
5월 5일(토)	제 24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5월 6일(주일)	유아세례식	
5월 13일(주일)	가족주일 행사	전세대예배
		사랑愛광장
5월 20일(주일)	교육주일 행사	브라보영락쌤!
		교육부 사역을 소개합니다
		주일예배 봉헌송
		교육주일 연합찬양
5월 20일(주일)~6월 17일(주일)	제1회 가정예배학교	
5월 25일(금)~27일(토)	영락청년선교비전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5월의 영락영화



이집트 왕자 (The Prince Of Egypt, 1998)

6일



감독 : 브렌다 채프먼, 스티브 히크너, 사이먼 웰스

주연 : 산드라 블록, 레이프 파인즈, 대니 글로버

상영시간 : 1시간 39분 장르 : 애니메이션, 가족, 모험 등급 : 전체 관람가

히브리인이 모두 이집트의 노예로 소유되었던 시대. 히브리인의 반란과 예언자의 출현을 두려워 한 이집트 왕 세티는 히브리 신생남아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기 모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기를 광주리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고, 왕에게 발견된 모세는 람세스와 함께 건장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한다. 어느 날 밤 모세는 파티에서 선물받은 미디안 처녀 십보라가 도망치는 뒤를 밟다가 자신의 친형제 미리암, 아론과 마주친다.



13일

베토벤 (Beethoven, 1992)

감독 : 브라이언 레반트

주연 : 찰스 그로딘, 보니힌트, 딘존스, 올리버 플랫, 스탠리 투치

상영시간 : 1시간 27분 장르 : 가족, 코미디 등급 : 전체 관람가

어느날 밤, 강아지가게에 개도둑이 침입한다. 개도둑들은 닥치는 대로 강아지들을 트럭에 싣고 도주한다. 이중에 섞여있던 주인공 버나드중 강아지는 다른 영리한 강아지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추위와 습기에 떨며 쓰레기통에서 하룻밤을 지낸 어린 강아지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신문을 가지러 나온 조지를 따라 뉴튼 집안에 몰래 들어가는데…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 2006)

20일



감독 : 알렉스 켄드릭 주연 : 알렉스 켄드릭, 새년 필즈, 제이슨

상영시간 : 1시간 51분 장르 : 드라마 등급 : 전체 관람가

사일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 감독 테일러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정에서의 문제, 계속 지기만 하는 미식 축구 팀, 심지어 자신의 직장까지 위협받게 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팀이 존재한다'고 목적을 새로 정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7일

맨발의 꿈 (A Barefoot Dream, 2010)

감독 : 김태균 주연 : 박희순, 고창석

상영시간 : 2시간 장르 : 드라마 등급 : 전체 관람가

동티모로 한국인 '히딩크' 감동실화. 하루 1달러 짹통 축구화로 시작된 기적.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꿈을 보고 싶어졌다! 한때 촉망 받는 축구선수였지만 지금은 사기꾼 소리를 듣는 전직스타. 이제 원광이 인생역전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곳은 내전의 상처로 물든 동티모르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커피장사로 대박을 꿈꾸던 그는 다시 사기를 당하고, 대사관 직원 인기는 전직스타에게 귀국을 권하는데…



‘은퇴제직상조회’를 아시나요?

창립 25주년을 앞둔 ‘은퇴제직상조회’와 문답으로 만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본 교회 ‘은퇴제직상조회’(회장 김충손 은퇴장로)를 만나 상조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본 교회 제직으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가입만 하면 천국 소망을 안고 서로 돌보는 단체가 바로 ‘은퇴제직상조회’다. 그간 궁금했던 점들을 문답으로 하나씩 풀어보기 위해 50주년기념관 1층에 있는 ‘은퇴제직상조회’ 접수처를 탐방하였다.



50주년기념관 1층 ‘은퇴제직상조회’ 접수처 모습 | 사진 이미혜 부선임기자

‘은퇴제직상조회’는 어떠한 조직인가요?

은퇴제직상조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제직상조회 회원이 돌아가셨을 때 회원들이 함께 부조금(현 1회 1만원)을 모아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 전달하여 위로하며, 상부상조하는 단체입니다. 이는 평소에 교회 봉사를 함께 해오며 친교를 나누던 제직들이 은퇴 이후에도 서로 믿음과 사랑의 친교를 이어가기 위한 모임이죠.

영락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퇴하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 직분을 가졌던 제직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본 상조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회원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회원들에게 알려 부조금을 수납하여 상(喪)을 당한 가족에게 부의금을 전달하고 조화를 보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합니다. 또한, 수납된 부조금, 연회비, 가입비, 적립금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언제나 수시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 2017년 말에 은퇴한 제직이라면 금년 6월 마지막 주일(금년은 6월 24일) 안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12만원을 입금해야 상조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 수납처와 입회원서를 제출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50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 상조회 회비를 수납하는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처가 있으며, 입회원서도 이곳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얼마입니까?

연회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1만원이며, 면제회원은 상하반기에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입니다.

▷ 최초 가입시 1회만 12만원

▷ 매년 연회비 1만원
회원 별세 시마다 부조금 1만원

▷ 면제회원은 연회비 2만원
회원 별세 시 부조금 면제

‘면제회원’ 또는 ‘면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면제회원’이란 만88세 이상이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200개월이 경과된 정회원으로 부조금 납부를 면제하는 회원입니다. 또 ‘면제’란 ‘적정 예산의 유지를 위하여 부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다’는 뜻입니다.

별세자는 1년에 약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과거 5년을 평균해 볼 때 연간 약 27명입니다.

회원 별세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먼저 ‘경조부’ 간사 또는 교구 목사, 전도사에게 별세 사실을 알리면 ‘은퇴제직상조회’는 경조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회원의 신상을 조회하여 상가(喪家)에 조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상조회 임원이 상가를 방문하여 문상하고, 가족으로부터 부의단자(거래은행, 통장번호, 연락처)를 전달받아 임원결재 후 다음 월요일에 송금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초 입회원서 작성 시 제1 수권자 또는 제2 수권자로 명기한 한 분에게 부의금이 송금됩니다.

현재까지 본인이 납입한 회비총액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언제든 50주년기념관 1층 수납처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전체사항을 알려드리며 필요시 인쇄도 해드립니다.

중간에 수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예. 수납처에 오셔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교회에 등록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수권자 변경사유를 말씀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얼마 안 돼서 별세해도 부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야만 전 금액(6백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연차 별로 차등 지급합니다.(회칙 9조 참조)

또한 미납된 금액(부조금, 연회비) 등이 있을 때는 차감 지급합니다.

〈가입기간별 부의금 지급금〉

가입기간	지급금
5년 이상	600만원
3~5년	300만원
2~3년	200만원
1~2년	100만원
6개월~1년	50만원
6개월 미만	30만원

인터넷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납입 회원카드에 계좌번호와 계좌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계좌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중에도 수납처가 업무를 하나요?

주중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 신용카드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은행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회원들이 편한

점은 있지만, 건별 수수료가 발생되어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금을 장례일 당일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앞서 9번 항에서 답변해 드린 대로 주일이 아닌 때는 업무를 하지 않고 주일에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을 당한 해당 주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비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안내문을 전달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거나 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회비 미납이 장기화되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회칙 5조 4항)

중도 탈퇴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도탈퇴가 가능합니다. 수납처에 오셔서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탈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 탈퇴하면 그동안 납입한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하게 되면 회원이 별세하셨을 때 수권자의 신청에 의해 부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후 5년 이상인 경우 200만원이며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회칙 9조2항 참조)

저도 상조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봉사할 의사가 있다면 수납처에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임원들이 검토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상조회 임원이 되면 혜택이 있나요?

임원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홍보출판부 사무실에서 인터뷰 모습. 왼쪽부터 박진현 기자, 김충손 은퇴장로, 김영대 은퇴장로 | 사진 원종석 기자

부의금 지급 최고 한도를 6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조회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몇 차례 인상을 해 왔는데, 현 600만원 지급 최고 한도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인상할 시기가 된 것 같아 검토 중입니다.

회원 별세 시 문자메시지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거나 휴대전화 저장 공간의 부족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일 수납처에 오셔서 담당 간사에게 말씀 하시면 못 받는 이유를 확인하여 알려 드립니다.

본회는 본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영락교회 내의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되었기에 교회로부터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상조회 해산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당회의 허락을 받을 시 해산이 가능합니다. (회칙 10조 2항)

상조회 준비금과 적립금은 무엇입니까?

「책임준비금」: 중대한 재난 등으로 정회원의 총의에 의한 법적 청산 시 정회원에게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두는 적립금액.

「비상준비금」: 회원 다수가 일시 또는 단시일 내에 별세하거나 혹은 평년에 비해 월등히 그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신규가입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의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현재 상조회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회원수는 약 1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조금만 더 회원이 증가한다면 100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조회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은퇴제직과 교우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께서 교회 제직에서 은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은퇴제직상조회' 가입 인원은 그 인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조회에 가입하셔서 은퇴 이후의 신앙과 믿음, 사랑의 친교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취재 박진현 기자

접수처: 50주년기념관 1층 '은퇴제직상조회' 문의: 간사 권철 집사 / 02-2280-0238(주일만 운영)

성경적 효와 나라 섬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한 인간을 대상으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창 6:3)하셨으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근로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도 주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 말씀과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3)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을(효자) 성경에서 꼽는다면 이삭이 되겠지요, 때로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이르러 어렵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땔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도끼와 뱃줄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나무도 도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한참 만에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 그냥 가자”고 대답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삭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때 추축건대 이삭은 젊고 힘센 나이였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살 정도였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에게 거역하여 빠져나올 힘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를 지시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보장 받는 은총을 입은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씩 축복받았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려장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생산적인 활동이 없고 밥만 축낸다는 이유로 부모를 깊은 산골에 갖다버리는 관습이



최성남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주사는 70이 넘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골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게 위에서 계속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가 나서 “어머니, 뭐하세요?” 물으니 “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이 나무를 따라 걸어가면 길을 잊지 않을 것이다”는 그 한마디에 도저히 어머니를 버리고 갈 용기가 없어서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골방에 숨겨서 몰래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신이 고려왕에게 똑같이 생긴 말을 두 필 가지고 와서 “이 말들은 쌍둥이가 아니고 어미와 새끼입니다. 고려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어미이고 새끼인지를 구별해 내십시오. 만일 밝히지 못하면 공물 30섬과 비단 100필을 조공으로 바치라는 천자의 명령입니다.” 왕이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이 생긴 말을 구별할 수 없어서 근심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주사는 어머니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저러하면 된다고 임금에게 아뢰라고 하여 임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임금은 왕주사의 말대로 두 마리의 말을 이를 동안 굶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를 후 중국 사신이 있는 자리에서 신하에게 “먹이를 져 멀리 갖다 놓고 두 마리의 말을 풀어주어라. 먼저 먹이를 향해 뛰어가는 말이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먹이를 보고 먼저 뛰어가는 말이 새끼였습니다. 중국 사신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한판 승부로 순순히 돌아가기에는 체면이 안 서니 다음 문제를 냅니다. “임금이시여, 재로 새끼를 꽈셔 한 자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어떻게 재로 새끼를 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번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근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왕주사가 어머니께 전하니 어머니가 다시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임금에게 아뢰길 “임금님, 새끼를 한 자 꽈셔 불에 태우면 그것이 재가 되니 재로 새끼를 꽈 것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 사신에게 재로 만든 새끼를 보이니 중국 사신은 “아! 동방 고려에는 현자가 많다더니 과연 그 말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가벼이 여길 나라가 아니구나”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편 임금은 왕주사를 불러서 “네가 아니었다면 나라에 큰 손해가 날 뻔했구나.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니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자 왕주사는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알려주었다는 사실과 어머니를 고려장하려 산 속으로 갔었던 일, 어머니의 나뭇가지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골방에 숨겨서 봉양하고 있다고 이실직고하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날부터 고려장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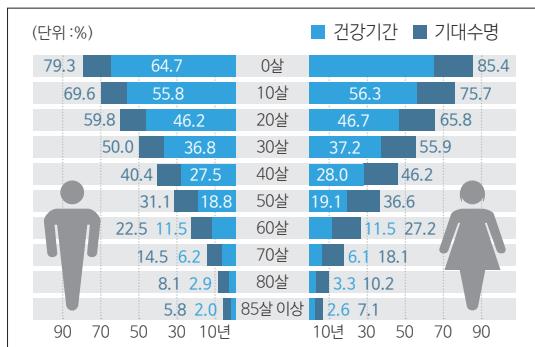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100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경에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을 존경하고 특히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사는 세대보다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자녀들의 수리 능력이 20배나 높아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8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만사형통하고 장수하여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날**

개인 연령에 맞춘 건강관리 요령

2017년 12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를 보면, 그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남성은 79.3살, 여성은 85.4살이었습니다(도표1 참조).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2015년 기준)보다 남성은 1.4년, 여성은 2.3년이 더 길며 특히 여성은 일본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4위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볼 때, 일생 동안 유병기간(질환을 앓으며 살아가는 기간)은 2년 전보다 0.8년 길어진 17.4년, 건강기간은 0.3년 짧아진 64.9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건강기간은 64.7년(기대수명의 81.6%), 여성은 65.2년(기대수명의 76.4%)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1) 2016년 성·연령별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자료 : 2016년 사회조사의 ‘유병기간’ 및 ‘건강평균’ 결과



이명춘 안수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이가정의원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사람들이 과거보다 오래 살지만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으며 사는 기간이 길어져 결국에는 노년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위험요인인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여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알아보자 하는데, 과거에 일률적으로 시행된 건강검진보다는 성별, 나이, 가족력을 고려하여 의사와 개별적 상담을 거친 후 건강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연령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및 건강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10대(예방접종을 철저히)

요즘, 소아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면서 10대 건강관리도 중요시됩니다. 10대라도 비만인 경우, 정확한 진단 및 그

도표2) 2015년 성별 암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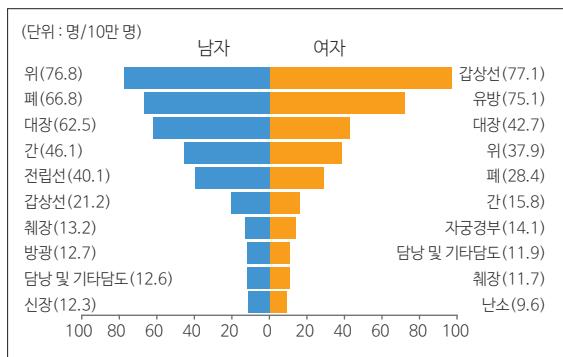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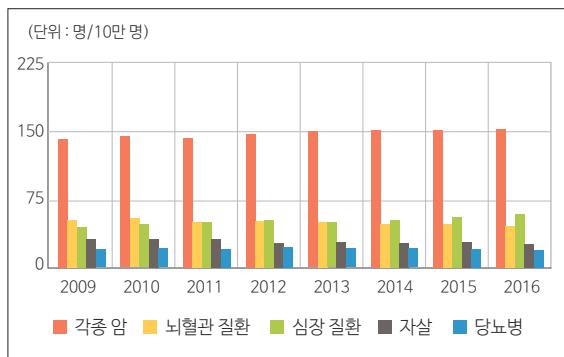


도표3) 최근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변화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에 따른 질병 발생을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좋습니다. 특히 성인병의 씨앗이 되는 흡연, 비만,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B형간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자궁경부암)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느리다면 성장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시력 및 척추 건강에 유념할 때입니다.

2. 20대 ~ 30대(생활습관 점검 및 건강검진 시작하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에 시달릴 시기이며 만성질환의 원인이 제공되는 시기이므로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및 당뇨, 혈중 지질(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성생활이 시작되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흡연력이 있는 30세 이상 대상자들은 폐저선량(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낮춤) CT를 통해 폐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암 검진 권고 연령보다 일찍

암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간염(A형, B형) 등의 항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간염 예방접종(A형, B형)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과 임신을 앞둔 여성은 풍진항체 여부를 임신 전에 검사받고 필요시 MMR(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40대 ~ 50대(철저한 건강검진 및 암 발생 주의)

본격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연령대이며 암 발생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암 발생률 순위에 따르면(도표 2 참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순(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 여자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으며, 사망원인으로는 암 및 심장 질환, 노혈관 질환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도표 3 참조).

이 시기는 심장, 노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및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가급적 한 곳의 병원을 정해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범국민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50세 이상 대상자는 매년 대장암 검진(암혈 대변검사 시행 후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연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위, 유방 및 자궁은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은 5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용종이 발견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1~3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리며 간 관련 질환(B형, C형간염 보균, 간경변증, 중등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 관련 검사(복부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대부분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 유방 영상(X-선) 촬영으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어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기를 권장합니다.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50대 여성은 골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으로는 독감(9~11월 실시),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 대상포진 등이 해당됩니다.

제 진료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시기는 다른 어느 시기 보다 중요하여 철저한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람들은 노년의 건강을 잘 유지하며 장수하는 예가 많습니다.

4. 60세 이후(치매 및 뇌졸중 검사 필수)

60세가 넘으면 암 검진을 포함한 일반 건강검진과 함께 치매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억력 감퇴나 치매가 우려된다면 인지기능검사(MMSE, GDS)를 받으신 후, 필요에 따라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니다. 또한, 60대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의 위험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뇌 MRI(형태검사)나 뇌 MRA(혈류검사), 혹은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검사는 뇌조직과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영상으로 확인하며 검사할 수 있어 뇌졸중의 조기 진단에 유용합니다.

예방접종은 독감(9~11월 실시), 대상포진, 폐렴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치매 혹은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족 중에 혹은 이웃에 살고 계시다면 지역 국민건강보험지사(대표전화 1577-1000)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령 및 가족력 등 개인의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땅, 방글라데시

의료선교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름다웠던 사역의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함께했던 임평호 목사님, 단원들 25명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 2월 15일부터 19일 까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으로 의료선교를 다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과 소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첫째 날, 방콕과 다카 두 곳을 경유하여 치타공에 도착하는 일정 중에 다카에서 뜻밖의 까다로운 출입 심사와 비행기의 자연으로 예정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여러 방편을 생각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다리는 중에 다행히 항공권을 다시 구해 다카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시간에 늦은 우리를 위해 항공사가 무려 한 시간 넘게 기다려 준 덕분이다. 어느 항공사가 한 시간이나 기다려 주는가! 우여곡절 끝에 18시간 만에 다카에 도착했다.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도착하기 전까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더욱 더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드디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 우왕좌왕했던 우리 단원들에게는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새벽 6시에 나를 깨워준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지상으로 울려 퍼지는 무슬림의 종교 기도 소리였다. 사역지로 가는 차 안에서 본 방글라데시 거



송지은
인천교구
의료선교부 간호팀

리는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먼지와 자동차의 매연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자동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닉샤(우리나라의 택시 역할과 같은 교통수단)가 먼저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도로 위는 정신없이 스치는 경적소리들로 난무했다. 가난과 종교의 굴레에 쌓여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고아원에서 대예배를 드린 후에 사모님께서 현재 사역하고 계신 고아원과 영락 믿음병원, 두 곳의 학교를 방문했다. 영락 믿음병원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후원금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뛰어노는 모습을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정의모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지, 또 지금까지도 기도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숙연해졌다. 이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빠띠아리초등학교 진료 후



방글라데시 의료선교 중 송지은 간호사 봉사 모습

둘째 날은 영락 믿음병원에서, 셋째 날은 바띠아리 학교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역하기에 앞서 모든 환경을 준비해주신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아픈 이들을 위해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안과 진료팀, 간호팀, 약국팀으로 구성된 우리들은 모두 열심히 진료하였고, 진료실 밖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티셔츠, 풍선, 스티커, 팝콘을 나눠주며, 함께 사진을 찍고 인화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역에 임하는 우리 대원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두 눈과 예쁜 미소로 받아주니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했다. 우리의 사역에는 정익모 선교사님, 협력하는 현지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사역하는 동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문화, 언어, 피부색은 다르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만 섬기는 시간이 되었다.

사역을 마치고 현지인들, 자원봉사자들과 만찬을 즐긴

후 간증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사역을 도와주시는 한국 분이 “하나님이 10년 동안 초석을 깔아주셨고, 영락교회에서 병원을 지워주셨다. 사랑의 집(고아원) 가까이에 병원이 있음으로 인해 아이들의 의료선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친밀해졌다. 또한 이 병원 안에는 아이들(현지인들)로 채워질 것이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한 현지인 청년은 우리의 섬김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큰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그분들의 고백이 도리어 내 가슴을 울렸고, 부족한 나의 작은 섬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받은 도전과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머물다 간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로서 삶의 기쁨이 되어 먼 훗날 그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헤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길 기도한다. **만남**

1 빌리그레이엄재단 하몬드 목사, 영락교회 방문

4월10일(화) 빌리그레이엄재단 아시아지역 총괄책임자 채드 하몬드 목사와 일행이 영락교회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2월 그레이엄 목사의 별세 때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가 빌리그레이엄재단에 위로금(USD10,000)을 전달한 데 대한 감사의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하몬드 목사 일행은 이종근 장로(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안내로 한경직목사기념관을 둘러보고 김운성 위임목사와 말씀을 나누었다. 하몬드 목사 일행은 한경직 목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세계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회고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이들에게 영락교회 선교 전략과 현황을 소개했으며 하몬드 목사 일행은 앞으로 영락교회와 빌리그레이엄재단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한경직 목사의 친필 액자 등을 선물했다.



2 한경직 목사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시대별 선교사역 사진전

한경직 목사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시대별 선교사역 사진전이 4월 15일(주일)부터 20일(금)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전에는 1956년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1차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교하고 한경직 목사가 통역하는 모습, 1973년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전도대회, 1984년 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 설교장면 등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었다.

교회소식

3 한경직 목사 우거처에 기도처 ‘팔복재’로 이름하고 현판식을 갖다

4월 17일(화)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 우거처에서 ‘팔복재’현판식을 가졌다. 김운성 위임목사, 교계 원로, 70주년기념사업회 위원,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철신 원로목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한 말씀이요, 천국시민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한 말씀”이라며 “팔복재에서 기도하는 분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팔복의 사람, 천국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교회창립 70주년기념사업으로 신축된 ‘팔복재’는 면적 98.55m²(29.86평)에 3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실과 한경직 목사 영상을 볼 수 있는 준비실을 갖추었다.



3

4 한경직 목사 성묘예식, ‘이 시대에 앞서가는 새 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4월 18일(수) 오후 2시 영락공원묘원에서 성도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직 목사 성묘예식을 가졌다. 김웅신 목사가 인도한 예배는 임정산 은퇴장로의 기도와 교역자 일동의 특송,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김운성 목사는 ‘새 것과 옛 것을 나오듯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한 목사님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과 그 정신을 토대로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성묘예식을 마쳤다.

5 2018 한경직 목사 기념예식

4월 20일(금) 오전10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의 인도로 ‘한경직 목사 기념예식’이 있었다. 김지철 목사(소망교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28:10-15)’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경직 목사의 신앙의 유산인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축복과 사랑의 공동체인 영락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의 가정, 우리나라와 세계에 믿음의 유산을 전승하며 이 땅의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등부 미디어 반이 제작한 ‘한경직, 그 가남긴 것’이라는 영상 상영 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이모저모



4



5



6



7

6 한경직 목사 기념특강, '이웃과 시대의 아픔에 복음으로 답하라'

4월 20일(금) 오후 1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한경직 목사 기념특강이 열렸다. 강사로 초빙된 손의성 교수(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는 ‘한국 교회 사회봉사의 문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교회의 사회복지는 영육의 전인적인 회복을 지향하며, 교회의 사회봉사는 구원사역의 채널이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교회 사회봉사가 바로 서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질적 사역, 즉 봉사를 곧 복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교회의 사회봉사를 복음의 한 양태로 인식하고 교회가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하며 치유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7 한경직 목사 기념음악회, ‘다양한 의미로 기억되는 한경직 목사를 기념하며’

4월 21일(토) 선교관에서 한경직목사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작곡가 최재도, 피아니스트 이윤수를 비롯하여 영락의 많은 음악인이 참여했다. 한경직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 444장(겟세마네 동산에서)을 토대로 한 ‘나를 위함이라’와 한 목사 설교를 바탕으로 작곡한 ‘새 힘 얻으리라’, ‘예배’ 등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

“즐거운 마음은 곧 좋은 약”이란 한 목사의 생전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한 ‘즐거운 마음’이 소년부찬양대와 오르간, 국악 타악 버전으로 다양하게 연주되어 신선한 감동을 전했다.

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최윤미 기자, 목진경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3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열렸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설교와 차동혁 목사, 박규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막 11:11)’, ‘무엇을 구할 것인가(막11:20~25)’, ‘새로운 종목(막12:41~44)’, ‘예수님의 감사(막 14:22~24)’, ‘한 청년의 고백(막14:50~52)’, ‘예수를 거기 두니라(요19:42)’라는 제목으로 6일간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생명의 무덤이며, 죽음까지도 이기는 승리의 현장”이라고 강조하고, “베다니의 영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새 종목에 도전하며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성금요예배, ‘십자가의 길’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와 목양부(부장 김원상 장로)가 공동 주관한 성금요예배가 3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본당과 벨엘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박규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공동기도문 낭독 후, 김운성 위임목사가 ‘왕 예수(막15: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문화선교부(선교부 산하) 위트니스팀이 협력하여 성극 ‘십자가의 길(연출 박준영 집사, 각본 유혜정 권사)’이 공연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자신 예수님을 그린 이 공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각자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부활주일예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수고’



지난 4월 1일 주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으로 부활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이제 우리가 할 일(눅 23:50~56)’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비유하며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한 헛된 수고 대신, 이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자”는 말씀을 전했다.

‘전교인전도주일’을 준비하며 생명을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락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을 위해 힘쓰길” 권면했다. 한편 이날 베다니광장에서는 ‘문화선교사역팀’ 주관으로 2부에서 4부 예배 후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고통에서 기쁨으로’ 감동 나눈 부활절 음악예배



4월 1일 부활주일 찬양예배는 베다니홀에서 임마누엘찬양대(대장 이종오 장로)주관으로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Above All Kings)’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예배로 드려졌다. 남정열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음악예배는 김정희 목사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가 이어졌다. ‘임마누엘찬양대’의 합창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돋보인 이번 특별찬양곡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린 작품으로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수난과 3일 후 부활과 승천에 집중한 작품이다.

‘문화선교사역팀’의 내레이션 및 영상과 연극 등 다채롭게 준비한 이 날 부활절 음악예배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왕들 중의 왕 되심을 노래한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었고, 베다니홀을 가득 메운 교우들에게는 아름다운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5일간 190명 참석



2018년 상반기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가 2월 20일(화)부터 24일(토)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동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통독과정은 신·구약의 시대적 배경과 구성 방식, 주제 등을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요절을 암송하는 등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노래로 부르는 구약성경, 노래로 부르는 신약성경' 시간에는 찬송가 184장과 534장의 곡조에 성경의 각 권별 특징을 담아 개사하여 만든 악보를 제공하여 190여 명의 참석자들이 성경 속 이야기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중등부, 사춘기 부모학교와 YDS 개강, '회복'



4월 14일(토), 중등부(부장 김재완 장로) 주관으로 사춘기 부모학교와 YDS가 동시 개강하였다. 하나님 사랑 안에 성장한 자녀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신앙적으로나 학교와 가정에서도 많은 혼란과 시련을 겪게 되며, 부모와의 갈등도 경험하게 된다.

이번 YDS 양육 훈련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부모들은 사랑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로 약속하는 소중한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총 8주간 열리는 본 학교는 '주제별강의', 'Ice Break', '소그룹 나눔', '가족캠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일 시: 2018년 5월 19일(토) 10:30~17:30
장 소: 봉사관 405호
회 비: 부부당 5만원(간식, 점심, 선물 및 기념품)
문 의: 상담부 2280-0171(봉사관 303호)
팀장 010-5374-6158 / 010-8609-1974



군선교 현장,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3월 31일 토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은 해병대교육훈련을 마친 해병대 신병들 중 희망자에게 진중세례식을 베푸는 날이었다. 제1남선교회 주관(선교부/제1여전도회 후원)으로 교역자 6분을 포함한 총 77명이 2대의 버스로 출발하였다.

1부 세례예식에서 최승도 목사가 ‘에벤에셀 하나님(삼상7:12~14)’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어 세례집전팀(12팀)이 총 566명(전체 교육수료 신병 1106명 중 51%)에게 세례를 주었다. 2부는 축하공연으로 1남중창단, 축사(前서울노회장 박순태 장로), 색소폰 듀엣, 격려사(영락해병선교회장 정문식 장로), 1남하모니카중창단 연주 등이 이어졌다.

진중세례식은 청년선교의 귀중한 터전이자 생생한 현장일 뿐만 아니라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한국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이번 진중세례식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공 제1남선교회

영락청년선교비전

- 주 제 :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Sower of the Gospels)
- 전임강사 : 강윤호 목사(現 반포교회 담임목사)
- 일 시 : 5월 25일(금) ~ 5월 27일(주일)
- 관련문의 : 청년부 황성수 회장 010-7791-5118
- 선교비전 내용

날짜	내용
25일 (금요일)	11:00~15:00 베다니광장 - 선교바자회 20:00~22:00 본당 - 금요본당기도회(청년부 주관)
26일 (토요일)	14:00~16:00 50주년기념관 808호 - 청년회 후원선교사 중보기도회 19:00~22:00 드림홀 - 찬양말씀집회
27일 (주 일)	10:00~12:00 베다니광장 및 교회곳곳 - 선교 및 청년 홍보활동 13:00~14:30 베다니홀 - 젊은이예배 17:00~18:00 본당 - 찬양예배(청년부 주관)

바로 잡습니다

지난 529호 교회소식 56면에 ‘김형우 육군참모총장’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당회원 영성수련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한 기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당회원 수련회가 있었다. 함께 버스로 이동했다. 첫날 오후 예배 및 특강에서 김운성 위임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중생한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이고, 장로가 먼저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공동체 훈련과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고, 저녁에는 영화묵상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영화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새벽예배와 성찬 시간에 김운성 위임목사의 “당회가 죽으면 영락교회가 산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성찬에 임하였다.

짧은 1박2일 동안 새로 부임하신 위임목사와 장로 간의 값진 소통의 시간을 통해 교회 성장을 위한 장로의 역할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다.

정리 흥영남 장로 사진 김한기 기자

영락수련원 화요예배 개강, 예배 후 ‘구역 모임’ 갖기도



2018년도 상반기 영락수련원 화요예배가 지난 3월 20일 개강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열리는 이 예배는 말씀과 묵상, 성찬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예배는 6월 26일까지이다. 예배 후 본관 2층 소망홀에서 영적 독서를 할 수 있고 브니엘 기도실에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다. 화요예배를 드리고 이어 구역 모임을 가지는 교우들도 있다. 예배 참석은 사전 신청이 필요 없으나, 식사를 원할 경우 미리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031-743-6537).

신대군 전도사(영성 담당)는 “영락수련원의 예배는 우리에게 외적인 분주함을 떠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락수련원은 2014년 12월 우리 교회 70주년을 기념하여 옛 영락여자신학원 자리에 새로 지었다. 말씀 묵상과 가족 수련을 목적으로 하며, 수련원 가까이 한경직 목사 우거처가 있다.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 시우거처 방문을 미리 신청하여 방문할 수 있다.

제공 영락수련원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개최, ‘질서 있고 화평한 여전도회’



여전도회가 공동주최한 연합수련회가 지난 3월 27일(화) 오전 10시 본당에서 열렸다. ‘질서 있고 화평한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850여 명의 여전도회원이 참석하여 서승신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김희순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정혜일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2장과 3장 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셔서 40년간 희생과 헌신의 과도기를 겪는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 세운 것 같이 성숙한 신앙의 길은 과도기가 따르므로 주님과 은밀한 영적 교제를 하며 우뚝 서는 여전도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1부를 마친 후, 안영봉 권사(제1여전도회 부회장)의 사회, 기도로 시작한 2부 특강에서는 수유리 기도원에서 7년간 시무했던 이춘복 목사(경기중앙교회 담임)가 ‘영의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전도회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제공 제2여전도회

‘전국 찬양대원의 소망’을 갖게 된, 음악부 영성수련회



4월 10일(화) 오후 7시 드림홀에서 음악부(부장 조영리 장로)가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조영리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백정진 집사가 김진 오르가ニ스트와 함께 교회력에 관한 찬양과 운율 등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찬양의 자세’에 관해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성령 체험의 찬양을 드리게 되면 회중에게 영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여러 사례를 들며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찬양을 부르는 전국 찬양대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했다. 참석한 모든 찬양대원들이 경청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 이어 음악부 지도목사인 유재경 목사가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을 부르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김운성 위임목사가 축도 함으로 참석한 400여 찬양대원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가운데 2018년 음악부 영성수련회를 마쳤다.

제공 음악부 사진 원종석 기자

서울노회 및 본 교회 전도사 목사안수식



4월 19일(목) 오전 9시에 '제194회 서울노회'가 대학로에 있는 동송교회(서정오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개회 예배와 성찬으로 시작된 서울노회에서는 102회기 총대선거와 회무 처리가 진행되었다. 오후 5시에 진행된 목사 임직식에서는 서울노회 소속 이대혁 외 27명의 전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았다. 영락 교회 소속으로는 이대혁(대광초), 이정훈(설악산수양관), 장이삭(국제예배), 김종명(싱가풀한인교회) 전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았다.

서울노회 공로목사이자 영락교회 원로목사인 이철신 목사가 권면의 순서를 맡아, 임직 받은 이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영성과 소명,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이철신 원로목사와 김운성 위임목사, 한현수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다. 많은 영락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목사 임직을 받은 이들을 축하했다.

취재 예진용 전도사 사진 김한기 기자

영락사회복지재단 혼신예배, '교우들의 기도와 혼신에 감사'



4월 8일 베다니광장에서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을 벌였다. 같은 날 찬양 예배는 영락사회복지재단 혼신예배로 드렸다. 박재현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 (약 1:26~2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광야를 헤매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변의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사회적 차원의 경건을 이룰 수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갖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박남진 장로는 보린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2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연혁을 설명하였다. 이 모두 영락 성도들의 기도, 자원봉사, 혼신, 그리고 후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목진경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3월 4일	김영순	10	041
	김석규	16	055
	백창근	03	016
	이광열	12	018
	강명희	11	010
	박신영	14	031
	김영화	06	003
	신윤경	10	056
	한은혜	08	052
	박용배	03	016
	구동주	04	022
	차주인	06	034
	곽예은	02	045
	강석근	08	019
3월 11일	박찬주	12	017
	서은정	12	018
	김은진	04	070
	박희락	10	013
	이영은	05	033
	문나영	12	049
	류가경	06	065
3월 13일	이지아	10	032
	최의숙	11	015
	이영선	11	015
3월 18일	조정민	09	006
	김윤성	80	888

등록일(3월 4일~4월 8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3월 18일	진수현	12	053
	송경호	06	000
	김경숙	06	000
	황경희	12	009
	공옥경	12	009
	김명숙	16	008
	백지현	09	040
	방현주	07	045
	하호연	17	028
	김태온	06	003
	김태율	06	003
	김강민	12	041
	류선옥	04	014
	최근철	08	000
4월 1일	이영	09	017
	석종인	01	000
	이정재	05	000
	손지연	06	000
	최림	04	014
	김종수	11	000
	조민지	02	000
	안하엘	08	062
	현주희	12	012
	한은봄	01	026
	황주원	15	029
	김주은	03	014

목회력

5月

- 4일(금) 연합권찰공부
- 5일(토)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 6일(주일) 어린이주일, 찬양예배 성찬, 젊은이예배 성찬, 국제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 13일(주일)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특별예배, 원포인트 교육주간, 제직회
- 19일(토)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 20일(주일) 성령강림주일, 교육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 25일(금)~27일(주일) 영락청년선교비전
- 27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영락역사자료

3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김신도 은퇴권사 (용인·화성교구)	3/7	200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임영수 목사 음성테이프 6건 1991년 1월 20일 권사회보 1건
박용범 장로 (미국 거주)	3/11	1986년 11월 1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촬영한 나학진 장로 사진 3건 1992년 6월 7~8일 한경직 목사 템플턴상 수상 후 L.A에서 촬영한 사진 4건
최성민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3/18	1992년 4월 특별새벽기도회 임영수 목사 음성테이프 6건
무명	3/18	1998년 11월 영락교회 중등부찬양대 가을정기 연주회 VHS 외 1건 CebC 합창단 영상 DVD 1건 1987년 한경직 목사 예배 카세트 4건 2002년 8월~2009년 5월 이철신 목사 설교 음성 테이프 23건 1997년 제 2회 영락교회 중등부찬양대 가을정기 음악회 외 기타행사 관련 음성테이프 16건 2001년 제 41회 전체 산상기도회 음성테이프 10건 1982년~1990년 「만남의 길」 16건 1989년~1995년 「평신도와 삶」 18건
장경미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3/18	1994년 4월~1995년 2월 「평신도와 삶」 3건 1990년~1993년 가정교본 2건
김문옥 은퇴권사 (서초교구)	3/22	1973년 12월 23일 한경직 목사 「나의 친우 반세기」 단행본 1건 1977년 7월 16일 제 4기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수료증 메달 1건
이영철 장로 (동대문·중랑교구)	3/25	2002년 제 42회 전체 산상기도회 음성테이프 9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교회에서 발행한 간행물 중 첫 번째, 창간호, 1회, 1기 등에 해당하는 사료
2. 교회 모임들의 창립기 및 1기 사료
3. 그 외 교회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료
4. 1960년도 이전 사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귀한 그림을 3작품이나 심게 되어 감사하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구절 그리기’를 주제로 한 ‘만남’ 주최 소년부 공모작이다. 14명의 어린이가 공모에 참여해주었

는데 사랑상(대상), 믿음상(우수상), 소망상(특선)을 3명에게 수상하였다. 심사기준은 ‘어린이다운 믿음의 고백이 잘 표현되었는가’에 있었다.

대상의 흥미로운 점은 어린이는 예수님의 온화한 사랑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었는데 보고 있으면 해도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예수님이다. 교회건물도 어린이다운 시선으로 특징을 잘 표현해주었다.

우수상을 받은 이예지 어린이는 주제가 되는 예수님과 교회의 표현이 사람들의 표현에 비해 충분히 묘사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교회마당의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을 놀랍도록 잘 묘사해주었다.

그리고 김서령 어린이도 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교회에서 받은 따뜻한 느낌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였다. 큰화면에 표현해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외에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물을 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잘 묘사해준 황민채 어린이의 그림도 인상적이었고, ‘만남’에 십화로 사용하여도 부족함 없는 김나영 어린이의 예수님과 아이들이 정답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래 어우러져 있는 그림, 이수진 어린이의 최후의 만찬 장면 등 수상작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표현의 작품들이 많았다. 꾸밈없는 아이들의 신앙고백을 그림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고 행복한 5월이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편집소위원회 |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현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만남’을 편집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달 특집 이름도 ‘이 모두 주의 은혜’인데, ‘만남’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 자체가 참으로 ‘이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늘가족’이라고 한 ‘표지’에서부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동부 예배실에 걸린 그림 글씨를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닮은 가족을 꿈꾸고 기도하며 두 손 모았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손길 위에 마치 예수님의 손길이 포개어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전교인 전도에 나서다’는 주제를 다룬 이번 호 특별기획 속에는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맺어지고 있고 영락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새롭게 써지고 있는지 등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전도에 나선 교우들’이 씨내려간 글씨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국 닮아가는 곳이 여긴가 봐’라는 간증문에 이르러서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으로 조리며 함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일까요? 바로 이어 정천우 장로께서도 ‘히브리인들의 합창, 영락교인들은 전진하라’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호부터 ‘교육’ 분야 카테고리에 ‘생활과 역사 속의 기독윤리’ 섹션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기독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기독윤리에 관한 구체적 질문들을 전문가와 함께 정직하게 응답해보고자 마련한 섹션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신의 생활과 역사 현장에서 단지 겉치리가 아닌 매우 실존적인 기독윤리를 묵묵히 실천해가는 가운데 영락교우분들 모두가 하늘의 큰 평화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숨은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주일 아침마다 5분만, 10분만 하며 주일 학교에 지각을 하는 하람이. 오늘은 엄마, 아빠, 누나가 1시간이나 시계를 빨리 맞춰놓고 깨운 덕에 하람이는 헬레벌떡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그림 속에 숨어있는 바늘, 하트, 고양이 얼굴, 바나나, 삼각자, 머리빗, 연필을 찾아보세요~



>> 「만남」주최 소년부 그림공모 수상작

사랑상



홍민서(소년 1부 5-8)

‘우리교회와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나에게 우리 교회를 떠올리게 했다. 무엇을 그리면 좋은까 고민하다 한정직 목사님이 제일 먼저 거대신 예배당을 배경으로 수채화를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은 따뜻한 우리들을 감싸고 계시고, 우리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친사들을 보내는 모습은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들이 빛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해 보았다.

믿음상



이예지(소년 1부 5-6)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렸습니다. 북간성교부에서 하는 활동과 또 가정예배 책자를 나누어 주는 활동과 농어촌 교회 돋기, 그리고 어려운 이웃 돋기, 그렸습니다.

소망상



김서령(소년 2부 5-5)

저는 영락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일요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들, 많은 감사한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영락교회 속에서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에서 소년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멘!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사랑상



홍민서(소년 1부 5-8)

예수님과 우리 교회